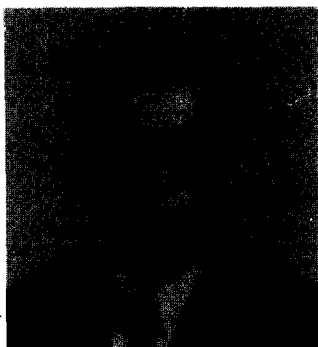


# '91년도 경제 운영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宋 基 徹  
(高麗大學校·經博)

## '90년의 국제환경

'90년대에 들어서는 첫 해인 '90년을 보내고 우리는 또 다른 한 해인 '91년을 맞게 된다. 도리켜 보건데 '90년 역시 國內外的으로 아주 어려웠던 한 해로 記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지금 세계는 한국으로 혹은 한국은 세계로 란 말로 표현되고 있듯이 공간적으로 12위의 무역국가로서 세계각국과의 관계가 많아져 국제적 환경변화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국제적 환경면에서 적지 않은 여러 일들이 있었다. 또 한국의 1년은 세계의 10년, 세계의 10년은 한국의 1년이란 말로 비유되고 있듯이 우리 자신의 변화는 국제적 환경변화와 겹쳐 우리들 자신의 불가피한 변신으로 우리 자신은 지금 급변화의 템포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볼때에 좋은 뜻으로 뿐만 아니라 또 나쁜 뜻으로도 90년은 역시 우리 자신이 급변화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을것 같다.

우선 국제적으로 보건데 북방정책의 험저한 진전을 들 수 있다. 동서냉전의 완화로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아닌 경제의 시대, 인권의 시대로 들어 감에 따라서 공산 여러 국가들의 개방화가 촉진되는 추세에 따라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이 개방화되어 우리와 국교를 맺게끔 되었다. 특히 '90년대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소련과의 국교정상화, 중국과의 무역사무소 설치 또한 남북한간의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교류 확대에 따른 경제교류증대등을 내다 보게끔 되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건 역시 두드러진 '90년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뿐만 아니라 '90년 8월에 일어난 이라크 후세인에 의한 쿠웨이트침공이 가져온 제3차

### ■ 목 차 ■

- 90년의 국제환경
- 90년의 국내환경
- 더 어려워질 91년
- 91년의 우리경제 전망
- 극난의 길

석유파동조짐과 그것이 물고온 국내외적인 여러 충격 역시 커다란 사건이었으며 그의 진척 여하에 따라서는 중대한 국면에 들어 설지 모르는 일이다. 이미 원유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고유가를 가져왔고 그 중동사태의 앞으로 전개가 적지 않아 '91년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가 '91년부터의 과제인데 이 협상 타결을 놓고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일로 보여진다. 그리고 EC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경제를 더욱 더 블록화하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국제환경은 화해무드로 가고 있기는 하나 이런 조정기를 맞아 격동과 고통 그리고 '80년말 보다는 좀 어려웠던 한 해로 볼 수 있었다.

## '90년의 국내환경

이러한 세계적 환경변화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90년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어려웠던 한 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문제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졌고 다만 외교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밝은 진전이 있었던 한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소련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중국과도 무역사무소가 개설되었고 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는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등 각계 각층에서 더욱 더 활발해진 것이 '90년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볼 때에는 3당통합이 되기는 했지만 집권당의 무력 무능 무위와 야당과 제야등의 극한적 대립등으로 야기된 정치적 불안과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욕구분출과 이해

당사자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야기된 노사분규와 각종 사회적 분규로 야기된 사회불안 거기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사회적으로 모양새 없는 일들에 대한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 나고 있으며 노동기장 역시 많이 헤이해져서 노동생산성이 푹 떨어지고 불량품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국제경쟁, 원가는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기타의 거래조건마저 악화되어서 급격히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우리 국내경제는 급격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제는 '88년을 절정으로 해서 점차로 나빠져 가는 추세에 있으면서 '90년의 우리 경제를 맞은것 같다. 도리켜 보건데 주요경제지표상으로 볼 때에 '88년의 12.8%를 절정으로 '89년에는 6.7%로 거의 반감했고 '90년에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는 하지만 앞으로 중동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지만 대체로 8~9%로 내다 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수지면에 있어서는 88년에는 경상수지흑자가 142억달러에 이르러 순외채를 80억달러로 감축시켰다. '89년에는 그것이 3분의 2나 축소되어 50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를 나타내 순외채가 30억달러로 까지 감소되었다. 그러나 '90년에는 국제수지가 반전되어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무역수지는 50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경상수지 적자도 25내지 30억달러에 이를 것이 아니냐고 내다 보고 있다.

한편 더 딱한 것은 물가 사정인데 소비자물가가 '88년의 4.2%에서 '89년에는 5.7% '90년에는 상반기에만 6.7%로 되어 있어서 하반기의 소비자물가 추세가 진전될지 알 수 없지만 두자리 수의 소비자물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는 한자리 수 물가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두자리 수 물가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

## 더 어려워질 '91년

다가올 '91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맞아야 할 '91년을 내다 봄에 있어서 낙관보다는 비관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우선 '91년의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말 그대로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경제전망의 주요변수인 원유가격, 각국의 환율, 금리등이 극히 불안정해서 주요 경제전문예측기관들도 '91년도 경제전망을 잇따라 수정하거나 또는 정리된 전망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90년에 이어 저성장이 예상되며 인플레이션등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을 고려 수정한 '90~'91 세계경제전망을 토대로 '91년의 세계경제 윤곽을 보면 표1과 같다.

(표 1) IMF세계경제 전망

(단 : 성장 : %  
경상수지 억달러 : %)  
위 : 물가 : %

국 가	'89			'90			'91		
	성장	물가	경상수지	성장	물가	경상수지	성장	물가	경상수지
전세계	3.0	-	-	2.0	-	-	2.4	-	-
선진국	3.4	3.9	-851	2.6	3.9	-9.58	2.4	4.0	-1,008
미 국	2.5	-4.2	-1,100	1.3	4.3	-970	1.7	4.2	-997
일 본	4.9	-1.5	572	5.1	1.5	475	3.7	2.1	558
서독독일	4.0	-2.5	555	3.9	2.9	489	3.3	3.6	384
프랑스	3.7	-3.4	-42	3.1	3.4	-46	1.3	3.2	-149
영 국	2.3	-6.7	-342	1.4	5.5	-266	3.0	5.7	-216
개도국	3.0	-104.6	-172	2.2	104.8	-46	4.2	16.1	-169
동유럽	-0.2	-	-	-5.3	-	-48	-0.4	-	-
한 국	6.7	5.7	50	8.8	9.5	0	6.9	9.5	적자

불안정한 중동정세에도 불구하고 유가전망은 사태발생이후 꼭 비관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열전으로 번지면 65달러나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낙관적인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사태가 전쟁과 유전파괴로 치닫지 않는한 유가는 '91년 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공급중단분이 하루 4백만배럴이지만 이는 사우디등 다른 석유수출국기구(OPEC)국가의 증산으로 충당이 가능해 '90년 4·4분기 유가는 배럴당 평균 26달러수준일 것으로 IMF는 예측하고 있다. 또 '91년 2·4분기 이후는 유가하락이 시작돼 4·4분기에 가면 OPEC의 기준가격인 21달러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IMF는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90년의 평균유가는 20.59달러 '91년에는 22.75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원유를 제외한 1차산품가격은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IMF의 또 다른 기본가정은 「주요통화환율은 '90년 8월의 평균수준이 '91년말까지 지속되고 유로달러금리는 8%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가 전망 발표(9월19일) 이후 달러약세가 급속히 진행되는등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8월중 1달러에 1백40엔대에 서 움직이던 달러화는 현재 1백30엔을 밑돌고 있다.

기본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이에 크게 좌우되는데 '90년 하반기 이후 일본의 실질금리가 미국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일본의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서로 상반된 상황 때문에 금리격차는 당분간 재역전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도 통일후의 인플레이션우려로 금리인하는 고려하기 힘든 입장이다. 국제금리로 그동안 주요 자본공여국이었던 서독이 동독통합후 막대

한 자체수요로 공급여력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재정적자축소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한계에 부딪치는 등의 요인으로 강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91년도 경제전망은 이같은 불안정한 환율 금리 또 중동사태의 전개여하에 따라 앞으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전제하에서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중동사태 이전의 기본전망인 2.8%보다 0.4% 낮은 2.4%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경기침체등으로 '90년에는 2%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금리인하가 늦어짐에 따라 민간수요가 둔화되어 1.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90년 재정수요가 늘고 수출이 호조를 보여 5.1%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나 '91년에는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3.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국가들은 EC통합 통독에 따른 소비 투자증대로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영국은 인플레이에 따른 고금리의 영향으로 '90-'91년중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개도국은 원유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큰 차이가 있고, 또 동구국가들의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90년의 2.2%의 침체에서 벗어나 91년에는 4.2%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로 접치고 있다.

IMF가 유가의 향방이 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앞서의 기본 가정하에서 0.5%미만의 영향에 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진국의 물가는 금융긴축기조가 이어질 경우 '90, '91년에도 '89년과 비슷한 4%안팎의 상승이 예상된다. 개도국의 경우 '90년에는 '89년에 이어 100%이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나 '91년에는 유고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초인플레이 국가의 안정화정책등으로 16%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이 나빠져 '90년에는 미국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경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91년에도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양대 투자국인 일본과 서독의 경우, 일본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91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90년의 4백75억 달러에서 5백58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통일된 독일은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4백89억달러에서 3백84억달러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지 꼭 그리 되리란 보장은 없고 특히 중동사태가 결정적 역할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 '91년 우리 경제전망

우리 경제는 '88년을 고비로 나빠지기 시작 '90년부터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현상 즉 고물가하의 저성장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선진국에서의 성장률과 대비해 볼때에는 건축을 중심으로 한 내수로 8-9%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은 되살아 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적 징후를 뚜렷히 하고 있다.

경제란 원래 보통 3~4년을 주기로 해서 불황과 호황이 나타내면서 성장하는 것이 상례이다. 불황때는 물건이 안팔리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진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국면에 있을 때에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그와 반대로 '91년에 가면 저성장하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두들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최근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들로 부터 속출하고 있다. '90년 10월초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 연차보고서와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금융통화위원회등의 '91

년도 경제운용에 관한 정책건의들은 모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권고는 성장률 목표를 낮추어 잡을 것과 강력한 긴축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91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기조를 「안정기조하의 적정성장」에 두고 '91년도 실질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하고 있다. 「불황」이라고 아우성을 쳤던 '90년 상반기의 실질 성장률전망치 8~9%에 비해서도 1~2% 가량 낮추어 잡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고 국제수지는 15억~20억달러의 적자를 내는 수준에서 관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1년전 발표되었던 「'90년 경제운용계획」과 비교해 보면 '91년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90년목표의 5~7% 보다 3~5%가 높아졌고 국제수지는 '90년 운용계획상의 「20억달러 흑자목표」가 '91년에는 「15억~20억달러 적자」 예상으로 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91년도의 경제운용계획은 「저성장」 「고물가」 「국제수지적자」가 핵심을 이루고 있어서 모처럼 이룩한 세마리 토끼인 「고성장」 「저물가」 「국제수지흑자」를 모두 노쳐 버리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80년 봄이후 가장 어두운 경제모습으로 우리 경제는 나타나고 있는 셈임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우리 나라의 민간연구기관들이 내다본 '91년 경제 전망을 보면 표2와 같다. 이에서 보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91년국내경제에 대해 '90년 보다 2%가량 낮은 6.2%~6.6%대로 둔화되고 소비자물가는 9.0%~15.0% 경상수지적자로 30억달러에서 55억달러로까지 적자가 늘어 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3개 민간경제연구소가 내놓은 '91년도

(표 2) 민간경제연구소 '91년 경제전망

(단위 : %억달러)

항 목		대우경제연구소 (9. 22 발표)	제일경제연구소 (9. 27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10. 5 발표)
성 장	G N P	6.2	6.5	6.6
	민간소비	8.3	7.0	7.0
	고정투자	15.5	11.0	13.7
	상품수출	4.0	5.0	2.2
	상품수입	9.2	9.5	9.0
소비자물가		11.0	15.0	9.5
국 제 수 지	경상수지	△ 55	△ 30	△ 55
	무역수지	△ 53	△ 25	△ 50
	수 출	648	685	670
	수 입	733	710	720
	무역외및 이전거래	△ 2	△ 5	△ 5

경제전망의 공통적 특징은 페르시아만사태가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할만하던 우리 경제에 원유가격 급등등의 타격을 가해 경기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라고 전망한 점, 이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고물가 패턴을 이루면서 국제수지도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10%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온 민간소비가 눈에 띄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가급등에다가 임금상승률은 이전만큼 큰 폭으로 계속되지 못할 것이고 부동산 증권시장등도 열기가 가셔 자산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실질소득 이상으로 부풀어져 있던 소비열기가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전망치는 성장률은 7.0%, 수출은 7백억달러 수입은 7백40억달러를 전제로 물가는 한자리 수로 잡어 보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판국에 우리 경제는 몇가지 결정적인 악재를 갖고 '91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첫째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빚어진 고유가시대의 도래이다. 원유가 도입가격이 배럴당 25달러로 고착된다 치더라도 '91년 경제성장률은 5~7% 성장에 그치고, 물가는 14% 내지 20% 까지 치솟을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무역수지는 40억달러 내지 50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유가격이 30달러 안팎으로 치솟는 경우 성장에는 더 더욱 둔화 추세를 보일 것이며, 물가는 20%선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번째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는 하지만 '91년에는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1년 상반기에 지방선거를 치를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우리는 돈을 화끈하게 풀어서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선거인플레이가 되기 쉽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또 이 선거가 '91년뿐만 아니라 '92 '93년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고들 하니 제발 돈들지 않는 돈쓰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경제에는 충격이 적을 것으로 보여 진다.

세째는 선거를 의식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정부의 예산이 팽창예산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추경예산까지 합친다면 추경예산을 두번씩이나 편성한데다가 '91년도 예산도 20%나 늘어난 9년만의 팽창예산으로 「재정인플레이」의 우려가 적지 않다.

네번째는 '90년에 무리하게 억제된 공공요금으로 이것이 '91년에 현실화되는 경우 물가와 동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는 '91년의 임금인상 역시 물가사정과정들여 노사불안과 원가상승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기 쉽다.

여섯째는 요 몇 년 사이에 「국민을 많이 버려 놓았다」고 보여지며 사회분위기를 들뜨게 하고 근로윤리를 저하시켜 국민생산성과 국민

건강을 해치는 면도 적지 않다.

일곱째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있느냐 또 국민들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가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대처하려는 결의를 갖고 있는냐를 볼때에 거리가 아직은 멀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 극난의 길

이런 저런 점으로 보아 '91년의 우리 경제는 경제난국이 아닌 「경제위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쿠웨이트침공사태 이전까지의 우리 경제는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국」이 었었으나, 쿠웨이트 사태이후의 우리 경제를 「경제위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중동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완화되더라도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위기국면에 있으면 우리는 이 경제위기국면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전에도 여러번 이번의 경제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위기국면을 너끈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첫째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국제적 국내적 환경변화를 냉철하게 내다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국민적, 산업적, 기업적, 가정적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국면에 있음을 모두가 직시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물론 위정자들은 국민에게 불안감과 자신감을 잃게 할까봐 약간은 모든 것을 장미빛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위기관리적 자세를 갖고 우리 경제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를 갖고 국민 기업 정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동사태가 우리가 걱정하는 정도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리 다행한

일이 없지만 만일에 대비한다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정치안정 사회안정이 경제안정에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경제는 순수한 경제문제로 보기 보다는 정치경제문제로, 사회경제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안정 사회안정이 되도록 정치지도자, 사회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법과 질서가 지켜지며, 각별히 노사화합에 기본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째는 국민들의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며 이는 오로지 우리 4천2백만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갖고, 물론 경우에 따라선 과잉의욕으로 실수를 한 적도 적지 않으나, 마음을 합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투자를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89년이후 우리 국민들의 단합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집단이기주의 더 나아가선 개인이기주의로 흘러 모두 내 이익만 생각하는 국면에 이르러 공동체의식이 상실되어 간 느낌이 없지 않다. 또 다시 단

합과 화합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째는 모두가 너 때문이야라는 사고를 나 때문이야라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그 무엇 보다도 긴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맞게된 것은 우리 국제경쟁력의 약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 우리 인류에 꼭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되 그것도 나만이 생산하고 값싸고 좋은 물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노동생산력을 올리고 많은 저축과 국산품애용을 통해서 투자자원을 많이 마련한 다음에 그 재원을 국제경쟁력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건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에는 기적이 없는 것으로 우리 하기에 달렸고 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꼭 극복해야만 한다.